



눈물로 보는 감동의 16분

광주·전남 60~70대 노인들이 제작한 단편영화 '엄마의 편지' 광주서 시사회

보성에 거주하는 80대 할머니는 원양어선을 타고 바다로 나간 아들의 편지를 하얗게 기다린다. 간절히 엄마 마음을 모르는 듯 무심한 아들은 10년이 넘도록 연락을 하지않아 애를 태운다.

글을 모르는 할머니는 직접 편지를 보내기 위해 이곳저곳에 도움을 청한다. 하지만 사람들은 슬픈 눈으로 바라만 볼 뿐이다. 아들은 이미 십수년 전 세상을 떠났고 이를 인정하기 싫었던 할머니는 언젠가 자식이 돌아오리라고 굳건히 믿고 있다.

마침내 현실을 인정하고 조카손자가 대신 써준 편지를 아들이 좋아했던 굴과 함께 바다로 떠나보내는 할머니. 광주·전남 지역 60~70대 노인들이 제작한 단편영화 '엄마의 편지'(감독 이정국·16분) 스토리다.

'엄마의 편지'를 감상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영화를 제작한 (사)광주영상미디어클럽(이사장 강홍길·이하 클럽)이 10일 오후 3시 광주 영상문화복합관 6층 G 시네마에서 영화시사회를 개최한다.

이번 시사회에서는 '엄마의 편지'와 함

10일 광주 영상문화복합관

영화 제작과정 담은

'노인을 위한 영화는 있다' 상영

이정국 감독과의 대화 시간도

께 영화 제작과정을 담은 메이킹필름 '노인을 위한 영화는 있다'(24분) 상영, 감독과의 대화 등이 진행된다.

'엄마의 편지'는 지난해 11월 정음실버영화제 최우수작품상을 수상하고 '제9회 서울노인영화제'(2016)에 초청되며 주목 받았다.

전문기술이 필요한 동시녹음을 제외하고는 기획부터 촬영, 편집, 출연진까지 회원들이 맡았다. 주인공은 실제 보성에 거주하는 이춘자(78) 할머니다. 회원들이 각 마을을 돌아다니며 주인공 이미지를 맡는 할머니를 직접 섭외했다.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평범한 이 할머니는 처음 카메라 앞에 섰지만 아들을 잃은 엄마의 슬픔을 담

담하게 표현하며 큰 감동을 전한다.

감독직은 최진실·박신양 주연 영화 '편지'(1997)를 연출한 보성 출신 이정국(60) 세종대 영화예술학과 교수가 재능기부했다. 1990년 '부활의 노래'로 데뷔한 이 교수는 1994년 '두여자 이야기'로 대종상 작품상, 신인감독상, 각본상을 수상했으며 '편지'로 인기감독 반열에 올랐다.

이 교수가 몇년 전 썼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제작한 '엄마의 편지'는 제작비가 500만원 이상 들었다. 광주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에 선정되며 300만원을 지원받았지만 나머지는 회원 사비를 투입해야 했다.

다큐 '노인을 위한 영화는 있다'는 촬영 현장과 함께 열악한 영화제작 환경을 다뤘다. 유난히 무더웠던 지난해 7월, 피약실에서 촬영에 열중하다 쓰러진 어르신들, 시사회를 열기위해 고군분투하는 과정 등을 엿볼 수 있다. 제목은 노인들이 힘들게 영화를 제작하고 있지만 지원은 미흡한 상황을 받아범으로 표현했다.

회원들은 '엄마의 편지'를 국제영화제

에 출품할 생각이다. 광주에서 외국인 대상 홈스테이를 운영하고 있는 서규례(여·79) 회원이 직접 번역을 맡아 영어자막을 넣는 작업도 마친 상태다. 또한 세종대에서는 영화제작 수업교재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 시사회를 마친 후 영화는 영상사이트 '유튜브' 등에서 만날 수 있다.

클럽은 광주시청지미디어센터에서 영상제작 교육을 받았던 60~70대 교육생 100여명이 지난 2012년 설립한 영화제작 단체다. 매년 여름이면 워크숍을 열고 꾸준한 영화를 제작하고 있다. 2012년 '무등산 아리랑'을 시작으로 2013년 '늘 푸른 인생', 2014년 '가화만사상', 지난해 '석양의 멜로' 등 매년 노인 주제 영화를 만들어왔다.

강홍길 이사장은 "문화도시 광주라고는 하지만 영화를 제작할 수 있는 여건은 매우 열악하다"며 "힘든 환경 속에서도 꾸준히 영화로 제작하며 노인들의 목소리를 들려주겠다"고 말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박진현의 문화카레

정동은(58) 광주시 국제관계대사를 처음 만난 건 지난 2015년 7월, 광주 동명동의 한 카페에서였다. 지난 2010년 기자가 출간한 '처음 만나는 미국미술관'에서 작가 프로필을 보고 광주일보로 연락을 한 것이다. 광주에 내려오기 전, 서울의 한 서점에서 우연히 이 책을 접했다는 그는 같은 광주출신이라는 점 때문에 반가웠다 했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대화를 나누는 동안 미술과 음악에 대한 그의 해박한 지식에 내심 적잖이 놀랐었다. 정 대사의 피아노 실력은 프로 연주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광주수창초교 1학년때 부터 피아노

번졌다. '그날' 이후 정 대사의 피아노 실력이 지역 문화계에 알려지면서 곳곳에서 러브콜이 이어졌다. 그중 지난 2015년 광주시립미술관의 '1600+판다 프로젝트' 오프닝과 아시아 문화전당 트래블 라운지 '여행자의 서재'는 그를 정식 연주자로 초청한 케이스. 하지만, 정 대사가 가장 즐기는 건 지역의 문화현장을 찾는 일이다. 퇴근 후 저녁이나 주말에는 미술관, 공연장, 문화전당, 갤러리, 양림동, 광주극장 등을 둘러 '문화가 있는 삶'을 누린다. 이런 이유로 지역 문화예술계에서 '정 대사를

피아노 치는 鄭대사

를 가까이 해온 덕분에 국제 행사나 문화이벤트의 오프닝에 초대될 만큼 뛰어나다. 2년 전 가을 밤, 조선대 부근의 한옥 레스토랑에서 지인들과 함께 처음 그의 피아노연주를 듣는 순간 왜 '피아노 치는 외교관'로 불리는지 알 것 같았다.

그가 광주 문화계에 '피아노 치는 대사'로 데뷔한 계기는 지난 2014년 10월 남아시아 문화장관회의였다. 30년의 외교관생활을 거쳐 그해 8월 광주시 국제관계대사로 부임한 후 처음 맡은 국제행사였지만 세월호 참사 여파로 문제부고 위인사들이 거의 참석하지 않아 리셉션장 분위기가 조금 썰렁했다.

그런데 문득, 그의 눈에 행사장 한편에 자리한 피아노가 들어왔다. 정 대사는 본 행사가 시작되기 전 피아노 앞에 앉아 '그리운 금강산'과 '사랑' 등 우리가곡 2~3곡을 연주했다. 그의 '마법'이 통해서였을까? 어색한 분위기가 감돌던 행사장은 화기애애한 오찬장으로 바뀌었고 참석자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모르면 간첩(?)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특히 그는 2년 전 광주를 방문한 스웨덴 대사나 핀란드 대사의 일정에 광주시립미술관을 끼워 넣는 문화외교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사실 우리 주위에는 문화생활을 즐기는 멋진 리더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다. 전시회나 페스티벌, 공연장을 찾는 '높으신' 분들은 있지만 오프닝의 축하사 기념사를 하기 위해 잠시 들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여행 광주를 이끄는 리더나 CEO, 고위관료들에게 문화마인드는 필수 덕목이다. 문화행사의 개막식에 참석해 '한 말씀'한다고 해서 문화마인드나 격이 저절로 올라가지 않는다. 올해는 정 대사처럼 문화현장을 자주 찾는 리더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예술가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열정에 박수를 보내는. 그리하여 문화를 가까이하고 생활화하는 '장(長) 말이다.

<편집부국장·문화선임기자>

광주아트홀, 매주 목요일 '공연 보는 날' 단체 선정

재즈·뮤지컬·음악토크쇼·연극 등 15개

지난 1월 광주아트홀이 올해 첫 공모한 '2017 문화 페스티벌-공연 보는 날' 대상단체가 선정됐다.

'공연보는 날'은 광주아트홀이 소극장 활성화를 위해 지역 문화예술단체에게 매주 목요일마다 공연장을 무료로 대관해주는 프로그램이다. 3월2일을 시작으로 매주 목요일마다 총 42회 진행된다.

선정된 단체는, 총 15개로 재즈, 퓨전음악(클래식+국

악), 뮤지컬, 음악토크쇼, 팝페라, 연극 등 다양한 장르가 눈에 띈다.

첫주자 '박영렬 재즈 콰르텟'은 대중가요, 가곡 등 친숙한 음악을 편곡해 재즈와 친밀감을 높일 수 있는 '퓨전재즈여행'을 총 8회 진행한다. 어린이 관람객들을 위해 재즈 풍 동요도 준비했으며 공연 중간 흥취연주로 동요를 들려준다.

지난해 4월 만들어진 퓨전양상방 'BLANC'은 '별랑의樂(라)자지깎'을 주제로 우리 전통음악을 새롭게 조명하

다.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에서 공부한 전문 연주자와 가야금·장구 등 국악연주자들이 한무대에 선다. 해설을 곁들여 이해를 도우며 총 4회 관객들과 만난다.

테더링엔터테인먼트는 관객들과 즐겁게 호흡하는 연극 '테더링의 개그콘서트'를 두차례 펼친다. 20대 출연진이 공감할 기반으로 한 웃음 유도를 콘셉트로, 짤막한 여러가지 개그공연을 보여주는 옴니버스식 무대를 꾸밀 예정이다.

그밖에 '시와 바람, 모꼬지'는 지역·외부자가 초청공연, 시극·시낭송 무대, 지역민 참여 공연 등으로 구성된 토크쇼 '시와 바람, 모꼬지'를 운영한다. 문의 062-227-7440. /김미희기자 mekim@kwangju.co.kr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참여 문화 시설·단체 모집

문화체육관광부가 23일까지 한국문화원연합회와 함께 '2017년 어르신문화프로그램'에 참여할 문화 시설·단체를 모집한다.

올해는 노인 대상 문화활동 지원(272개), 문화일자리(25개), 어르신·정년 협력 프로젝트(12개) 등 300여개의 프로그램에 대한 공모가 진행된다.

문화활동 지원·문화일자리 문화원, 문화의집, 박물관, 도서관, 복지회관 등 문화시설이 대상이고 협력 프로젝트는 문화시설·문화예술단체가 대상이다.

2017년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사업 공모는 홈페이지(www.seniorculture.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CBS 바이블칼리지

동방사 조병호의 Tong Bible School

통통성경학교

CBS 바이블칼리지 통통성경학교는 성경 전체를 균형 있게 통통으로 공부할 수 있는 '인터넷 성경학교'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쉽고, 재미있고,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으며, 성경 66권 전체를 편편화하지 않고 하나의 이야기(One Story)로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역사순 100강의 + 성경과 5대제국 20강의(스페셜)

- 세계 최고의 성경학자 조병호 박사가 직접 강의합니다.
- 성경의 역사, 지리, 문화, 신학을 모두 통통으로 공부합니다.
- 성경 전체를 역사순으로 통통(1독) 합니다.
- 누구나 가장 편안한 시간과 장소에서 공부할 수 있는 일대일 인터넷 강의입니다.
- 성경을 체형하고 성경으로 행복해집니다.
- 5세 자녀에게 성경을 통통으로 이야기해줄 수 있게 됩니다.
- CBS와 통통원이 공동으로 발급하는 수료증(Certificate)이 제공됩니다.

수료증

종교개혁 500주년 Sola Scriptura!

CBS 바이블칼리지! 세계 최고의 성경학자 조병호 박사

통통성경 Story 인터넷 100강의! cbsbible.co.kr

성경 전체를 균형 있게 통통으로 공부합니다.

Study the whole Bible in a balanced way using the Tong method.

강사소개 - 통통박사 조병호

세계적인 성경학자, 밀리언셀러 저자, 종교개혁 500주년기념 비텐베르크 스피커

통독원 원장, 하이기독교회 담임, 미국 드루대학교(Drew University) 객원교수,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과 (Th.B. 신학사),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M.Div. 교역학석사)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Th.M. 조직신학, 신학석사), 영국 에든버러대학교 대학원 (Th.M. 선교신학, 신학석사), 영국 버밍엄대학교 대학원 (Ph.D. 역사신학, 철학박사)

베스트셀러 『성경과 5대제국』 - 2011년 한국기독교출판문화상 대상 수상 『성경통독』 - 2005년 한국기독교출판문화상 최우수상 수상 『청소년 성경통독』 - 2009년 한국기독교출판문화상 우수상 수상

주요저서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성경과 고대전통』 『성경과 고대정치』 『신구약 중간사』 『통성경 길라잡이』 『성경통독과 통통신학』 『와우! 예레미야 70년』 『Family School을 위한 통통성경학교』 『한국기독교청년학생운동 100년사 산책』 『消失의帝國』 - (中國 團結出版社 / 성경과 5대제국 증문판) 등 30여 권.

편찬 『역사순 일년일독 통통성경』 『역사순 통통성경』

신청안내 PC : cbsbible.co.kr | 모바일 : m.cbsbible.co.kr

회원가입 ▶ 수강신청 ▶ 등록절차에 따라 진행 ▶ 결제 ▶ 결제승인 후 등록 완료 ▶ 강의 교재 발송 & 강의 동영상 오픈

게서란 문의 : 회원가입 ▶ 고객센터 ▶ 문의하기 / 전화 문의 : CBS바이블칼리지 T.02-2650-7800, 7801 / 교육비 : 30만원 (주교재 포함)

CBS

Media Group